

도시화되는 농촌지역 주택의 식사·취사공간 사용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tterns of Eating and Cooking Spaces Usage of the Residence in An Urbanizing Rural Community.

윤 정 숙*
Yoon, Chung Sook
이 은 경**
Rhee, Eun Kyou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of eating and cooking spaces usage of the residence in an urbanizing rural community and suggests planning data to help plan which reflect the residents' housing need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Sam ga-3ri village and Yoo bang-2ri village in Yong-in, Kyungki-do, which showed a changed living pattern by urbanization, was chosen and the field survey method was used.

As a results of this study, I have shown that although rural housing needs to modernized it should not simply duplicate the organization of the urban kitchen. The residents of rural communities need for modernized their cooking facilites, but they need to do this in a way that fits their lifestyle.

I. 서 론

1. 연구목적

공업화, 도시화, 근대화 사회 속에서 우리의 농촌사회는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들 변화는 도시를 원천으로 하고 있고 거의 모든 물질적, 비물질

적 문화가 도시에서 창출되어 농촌에 전파된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상호 영향적이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일방적인 도시의 영향과 충격에 대하여 농촌은 수동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도시화 되어간다.

한편, 주거공간에 있어서도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농촌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는 농촌주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주거공간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 주생활학과 부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생활학과 연구조교

역시 일방적인 도시의 영향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되었다. 주거공간의 문제는 공간자체로서만이 아니라 그 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공간과의 대응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화되는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생활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이를 수용하는 주거공간의 실태를 생활과 공간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그들의 다양한 생활상에 맞는 농촌지역의 합리적인 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화되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주생활 특성에 적합한 공간을 계획하기 위하여 식사·취사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사용방식을 파악하여 도시화되는 농촌지역의 식사·취사공간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생활과 공간과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거주자의 주생활과 주공간의 사용방식을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도시근교의 농촌지역을 선정하여 거주자의 생활을 현지 조사하고, 기록된 자료를 실측 분석하는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 조사지역의 선정

1) 지역선정 기준

도시화되어가는 농촌지역에서 공업화, 도시화, 근대화에 따른 변화 양상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선정하였다.

- (1)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일 것
- (2) 도시화의 영향에 따라 변화가 다양한 지역일 것
- (3) 조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찰이 용이한 지역일 것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삼가 3리와 유방 2리를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삼가 3리 34가구 유방 2리 30가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시기

- 1) 용인군 용인읍 삼가 3리 아랫마을 조사 : 1987년

8월 19일~22일

- 2) 용인군 용인읍 삼가 3리 윗마을 조사 : 1988년 7월 4일~6일

- 3) 용인군 용인읍 유방 2리 상유곡 조사 : 1989년 8월 12일~15일

3. 조사방법 및 자료분석

1)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면접과 관찰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거주자들의 생활과 공간 사용방식은 훈련된 조사자들이 호별 방문하여 가능한한 주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관찰하였으며, 주택의 물리적인 측면은 실측 사진촬영, 관찰, 스케치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마을의 일반적인 개요 및 주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마을의 대표자(이장, 반장)로 부터 청취조사와 행정 기록물을 참고하였다.

2) 조사처리 및 분석방법

1987년과 1988년에 조사된 자료로 작성된 용인군 용인읍 삼가 3리 아랫마을과 윗마을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 자료집을 기초로 분석하고, 1989년에 조사한 용인군 용인읍 유방 2리의 자료를 하나 하나의 사례에 충실하게 기술하고 정리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된 64가구 중 자료가 미비한 6가구를 제외한 58가구에 대하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질적 분석하였다.

III. 조사개요

1. 가족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가족특성으로 가족구성, 가족수, 세대주와 주부의 연령, 직업, 수입원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1) 가족구성

가족형태는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 32사례, 확대가족이 26사례로 핵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수는 4-5인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2) 세대주의 연령

세대주는 40~59세까지의 장년층이 31사례(53%)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20~39세의 청장년층과 60세이상의 노년층이 비슷한 분포

〈표 1〉 가족특성

전체 : 58사례

가족특성		사례수				
		10	20	30	40	50
가족 형태	핵 가족	32				
	확대 가족	26				
가족 의 수	3 인 이 하	15				
	4 인 - 5 인	22				
	6 인 - 7 인	17				
	8 인 이 상	4				
세대주 연령	28세 - 39세	12				
	40세 - 59세	31				
	60 세 이 상	15				
주 부 연 령	20세 - 39세	17				
	40세 - 59세	30				
	60 세 이 상	11				
수 입 원	농업전업	11				
	농업겸업	33				
	비농업	14				

를 보이고 있었다.

3) 수입원

가족의 수입원은 농사에 의한 소득과 농업외에 가족구성원 중에 공장이나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농업외의 소득, 방을 세주어 얻는 소득등으로 나타났다.

거주자의 직업은 수입원에 따라 농업전업, 농업겸업, 비농업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경우인 농업전업 가구는 11사례, 농업과 함께 비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33사례, 농사는 전혀 짓지 않고 비농업에만 종사하는 경우가

14사례로 나타났다.

세대주 연령과 세대주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20~39세의 청장년층은 대부분이 비농업이나 농업겸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40~59세 사람들은 농업전업, 농업겸업, 비농업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60세 이상의 노년층은 거의가 농업전업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농업외의 직업이나 농업겸업에 종사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2. 건축특성

조사대상 주택의 건축적 특성으로 건축시기, 주택구조, 주택규모를 안채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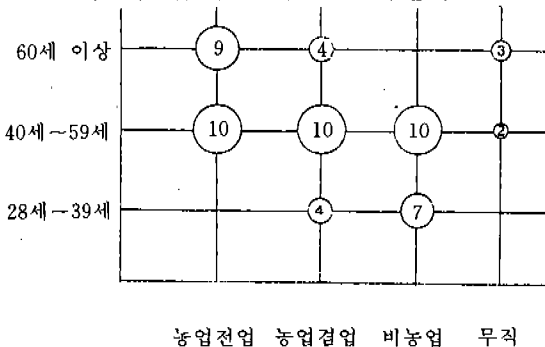
1) 건축시기

조사대상 주택은 196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 11사례, 1960년대에 지어진 주택이 8사례로 나타났다. 1970년대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주택개량이 활발히 일어나 25사례의 주택이 지어졌다. 1980년 이후에도 14사례의 주택이 지어졌다.

2) 주택구조

이 지역에서는 목구조 주택이 17사례 시멘트 블

〈표 2〉 직업과 세대주 연령과의 관계



〈표 3〉 건축적 특성

전체 : 58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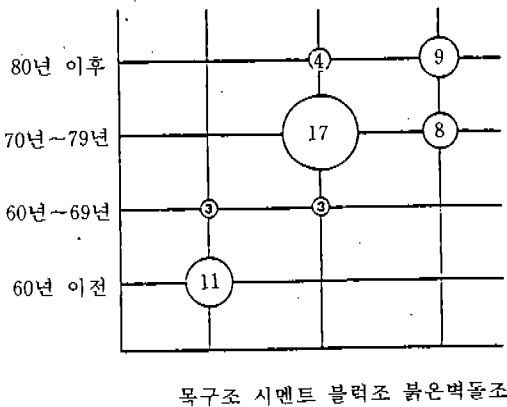
가족특성		사례수				
		10	20	30	40	50
건축시기	1960년 이전	11				
	1960년~1969년	8				
	1970년~1979년	25				
	1980년 이후	18				
주택구조	목 구조	17				
	시멘트 블럭조	24				
	붉은 벽돌조					
안채규모	10평미만	3				
	10평~19평	35				
	20평 이상	20				

릭조 주택이 24사례, 붉은 벽돌조 주택이 17사례가 나타났다.

3) 안채규모

주택의 규모는 대부분이 10~19평의 규모이며 (35사례) 20평 이상인 경우도 20사례가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대상지역의 주택은 다양한 구조와 건축시기가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주택의 건축시기와 구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4〉 주택구조와 건축시기와의 관계



IV. 농촌주택의 주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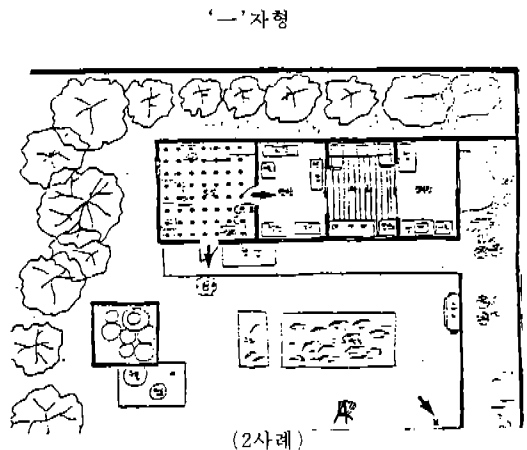
1. 주택의 평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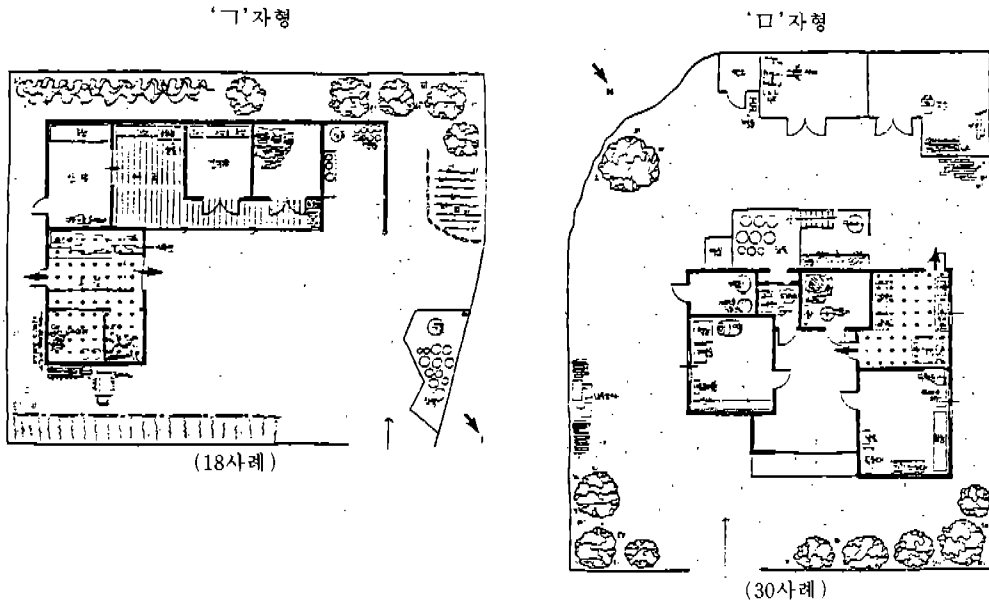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역에서 주택의 평면은 그

형태에 따라 ‘-’자형과 ‘ㄱ’자형, ‘口’자형으로 뒤틀어졌고 중축이나 개축에 의하여 그 구성과 형태가 복잡해진 기타형도 나타났다. (그림 1).

‘-’자형은 부엌+안방+마루+방으로 구성된 4칸형으로 조사대상 58가구중 2가구가 나타났다. ‘ㄱ’자형은 ‘-’자형의 평면에서 안방의 전면에 부엌이 붙은 형태로 18사례가 이에 속하였다.

‘口’자형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에 의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표준형 농촌주택 설계도를 기본으로 지어진 주택과 1980년 이후 도시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주택으로 30사례가 여기에 속하였다.





〈그림 1〉 주택의 평면유형

〈표 5〉 주거공간의 변경내용과 변경시기

변경공간	변경시기		~59년	60~69년	70~79년	80년
	변경내용					
방	신축	축			○	○
	증축	축	○○○		○	○○○○
	이분	분				○
	용도 변경	경				○○○○
셋방	신개	축			○	○○○○○
	개축	축				○
	용도 변경	경			○	○○○
마루	분합문 설치	치			○○○	○○○
	증축	축		○		○
	뒤틀마루 설치	치				○○
부엌	신개	축				○○
	개축	축				○○○○
	증축	축				○
	설비 변경	경				○○
목욕탕	바닥차 없앰	없				⊙○○○
	신축	축			○	○○○○
변소	용도 변경	경				○
	신축	축			○○	⊙○○○
부속공간	신개	축			○	⊙○○
	개축	축			○	○
	증축	축				○
	감축	축				○

⊙ 10사례 ○ 5사례 ○ 1사례

2. 주공간의 변경

조사대상주택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1) 방

방에 대한 변경은 주인가족이 사용하는 방과 셋방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졌다. 주인가족의 방에 대한 변경은 면적의 확대에 대한 요구와 방 수의 증가에 대한 것이다. 입식가구와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생활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해졌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므로써 독립된 자녀실을 원하게 된다고 볼 수 있었다.

셋방에 대한 변경은 18사례가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지역이 도시근교지역으로 근처에 공장이 들어서 있어 공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전입해 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지어진 집들은 신축시부터 셋방을 고려하여 집을 짓고, 이미 지어진 집의 경우는 용도변경하여 셋방을 만들거나 별채를 지어 세를 주기도 하였다.

2) 부 율

부엌은 가장 많은 변경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그 내용은 입식화였다. 방이나 마루와의 바닥차를 없애거나 입식의 부엌가구를 도입하거나 개량식 작업대로 교체하였다.

3) 마 루

마루에 대한 변경은 모두 목구조인 한옥에서 발생하였다. 그 내용은 면적의 확대와 실내화로 요약될 수 있었다.

4) 변소·목욕탕

변소의 신축이나 개축은 자발적 측면에서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재래형은 유지되거나 바닥을 시멘트나 타일로 마감하고 화식변기를 설치하였다.

목욕탕은 실외에 광이나 변소등과 접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였다. 이처럼 변소의 위생화와 목욕탕의 신축 등을 통하여 농촌 주택에서 생리·위생공간에 대한 요구의 증가를 알 수 있다.

5) 부속공간

부속공간이란 연료, 농기구, 곡식류 등의 수납을 위하여 안채를 연결하여 증축한 공간이나 별채의 공간을 의미한다. 부엌 다음으로 많은 변경을

보인 공간으로 농촌주택은 도시주택과는 달리 보다 많은 수납공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식사·취사공간의 사용방식

1. 식사공간 사용방식

1) 식사가 이루어지는 공간구성

본 조사에서 식사 이루어지는 공간은 안방, 건넌방, 마루, 부엌으로 나타났다(표 6).

식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계절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름철에는 마루에서 겨울철에는 안방에서 식사가 이루어지는 예가 가장 보편적이었으며, 부엌에서 식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여름철에만 부엌에서 식사하고 겨울철에는 안방에서 식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부엌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식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나타나 부엌이 식사공간으로 등장하면서 식침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표 6) 식사가 이루어지는 공간구성

사례수	10	20	30
계절에 따른 공간			
여름	방	방	방
안방	방	방	방
마루	방	방	방
부엌	방	방	방
부엌	방	방	방

2) 식사공간 사용방식

(1) 기거양식

식사의 기거양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밥상을 이용한 좌식과 식탁을 이용한 입식으로 나누어졌다. 다목적 공간인 안방과 마루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전 사례에서 이동이 가능한 밥상을 이용한 좌식의 기거양식을 취하고 있었고 부엌에서 식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16사례는 식탁을 이용한 입식의 기거양식을 취하고 4사례는 밥상을 이용한 좌식의 기거양식을 취하였다.

(2) 식사공간 사용방식

식사가 이루어지는 공간구성과 이에 따른 기거양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7).

〈표 7〉 식사공간 사용방식

전체 : 58사례

유형	식사공간의 구성	기거양식	사례수	계
I	안 방	좌 식	6	6
II	안 방 + 마 루	좌 식	32	32
III	안 방 + 부 엽	좌 식	2	10
		입 식 + 좌 식	8	
IV	부 엽	좌 식	2	10
		입 식	8	

계절에 관계없이 안방이나 그외의 방에서 식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6사례로 I형에 속하였고, II형은 여름철에는 마루, 겨울철에는 안방에서 좌식으로 식사가 이루어지는 예가 32사례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보편적인 식사방식이며 III형은 여름철에는 부엌에서 겨울철에는 안방에서 식사하는 경우로 입식의 기거양식이 나타나기도 하며 식침분리의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IV형은 완전히 식침분리가 이루어졌고 거의 입식화된 형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부엌에서 식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였다.

이와같이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식사공간 사용방식은 계절에 따라 공간사용이 달라지고 좌식의 기거양식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도시화의 영향

으로 식침의 분리가 이루어져 부엌에서 계절에 관계 없이 식사가 이루어지고 식탁을 사용하여 입식의 기거양식을 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2. 취사공간의 사용방식

1) 취사가 이루어지는 공간구성

일상적인 취사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부엌과 마당을 중심으로 목욕탕, 부속사, 마루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구의 구체적인 취사행위에 따른 사용 공간은 다음 (표 7)과 같다.

(1) 일상적인 씻기

준비를 위한 씻기 행위는 소량인 경우 부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밭에서 직접 가져와 흙이 묻어 있는 채소나 양이 많은 김칫거리, 비린내나는 생선류 등은 마당수도에서 씻게 된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는 부엌과 마당에서 비슷한 빈도로 일상 씻기 행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2) 다듬기

다듬기는 양에 관계없이 마당에서 주로 이루어 지는데, 이는 농촌지역에서는 농산물을 직접 재배 하여 밭으로 부터 흙이 묻은 상태로 가져오므로 마당에서 흙을 털고 다듬어 부엌으로 가져와 씻거나 그냥 마당수도에서 다듬고 씻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었다.

〈표 7〉 취사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구성

전체 : 58사례

행 위 \ 공 간	부 엽	마 당	목 욕 탕	부 속 사
일 상 씻 기	● ●	● ●	●	● . . .
다 듬 기	●	● ● .	. ●	● .
조 리	● ● ●
배 선	● ● ● . . .			
뒷 처 리	● ● ●	● ●	● . . .

20사례 ●●
 사례 10사례 ●
 5사례 ●
 1사례 .

(3) 조 리

일상적인 조리는 부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부엌내에 상수도가 없는 경우는 마당의 수도가에 서 씻고 그 곳에서 간단한 조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열행위는 모두 부엌내에서 가스레인지 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4) 배 선

조리된 음식을 배선할 때는 부엌에서 상을 차려 식사공간으로 옮겨졌고, 냉장고 식기장 등이 마루 에 놓여있는 경우는 마루에서 상차림이 이루어졌 다.

(5) 뒷처리

조리가구나 식기류의 뒷처리 행위는 대부분 부 엌에서 이루어졌고 조리기가 큰 경우나 식기의 양이 많은 경우 마당수도나 부속사의 수도 목욕탕 등으로 확장되어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취사행위는 부엌을 중심으로 마당수도 가 등으로 확장되어 이루어졌는데 취사행위 내용 에 따라 사용공간이 달라졌다. 조리과 배선은 부 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준비를 위한 씻기행위 와 뒷처리는 부엌과 마당에서 비슷한 빈도로 이루 어졌다. 또한 다듬기는 마당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취사공간의 유형화

취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부엌, 마당, 목욕탕, 부속공간 등으로 나타났는데 그 구체적인 사용실 태를 살펴 본 결과 부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리적 측면의 시설·설비도 부엌이 복잡하고 다 양한 양상을 띠고 그 외의 공간은 좌식의 급배수 설비를 갖추고 물처리가 가능한 재료로 마감된 단 순한 형태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엌 공간 만을 대상으로 물리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유형 화 하기로 한다.

부엌의 물리적 실태를 파악하고 유형화하는 기 준으로는 조사결과로 부터 뚜렷한 변화를 나타낸 설비측면에서의 급배수 설비와 난방설비를, 시설 측면에서는 작업대의 형태를 살피고 구조 및 재료 면에서는 부엌 바닥의 재료와 부엌과 다른 실내공 간의 바닥차 유무를 설정하였다.

위와같은 5가지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엌의 유형을 나눈 결과, 조사대상지역의 부엌유형은 재

래형이 8사례 개량형이 19사례, 입식형이 31사례 로 나타났으며 유형에 따른 특징은 다음 (그림 2) 와 같았다.

(1) 재래형(8사례)

급배수 설비가 없거나 상수도가 60cm이하의 높 이에 설치되어 있고, 작업대가 특별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60cm이하의 재래식 부뚜막을 작업대 로 사용하고, 바닥의 재료는 흙이나 시멘트몰탈 또는 시멘트몰탈 위에 부분적으로 비닐이 깔려 있 었다. 부엌내에 재래식 아궁이 설비나 연탄 아궁 이 설비가 있다.

(2) 개량형(19사례)

부엌내에 급배수 설비가 60cm이하의 좌식으로 되어 있거나 높이 60~80cm의 개량식 설비로 되어 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닥은 물처리가 가능한 시멘트몰탈이나 시멘트몰탈 위에 부분적으로 비닐 이 깔려 있기도 하다. 부엌내에 재래식 아궁이와 연탄 아궁이가 함께 없거나 연탄 아궁이만 있는 경 우도 있다. 바닥은 다른 실내공간과 차이가 있거 나 25cm이하의 차만 있는 경우도 있다.

(3) 입식형(31사례)

입식형이란 급배수 설비와 작업대가 높이 80cm 이상인 공장제품이나 입식설비로 되어 있고 바닥 은 다른 실내공간과 차이가 25cm 이하이고 비닐이 나 모노롬 등이 깔려 실내화 되었다. 부엌내에 연 탄 아궁이 설비가 있거나 아궁이 설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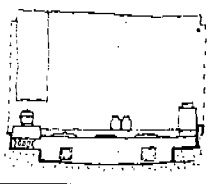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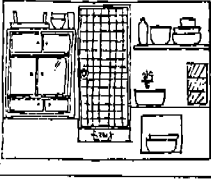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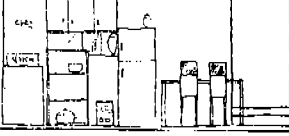
3) 취사공간 유형에 따른 공간사용방식

(1) 재래형에서의 공간사용방식

재래형에서는 개수대나 작업대 설비가 없거나 좌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취사행위가 좌 식이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부엌이외의 마당이나 그외의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었다(표 8).

① 취사내용에 따른 사용공간과 기거양식

구체적인 취사내용에 따른 공간 사용 방식을 살 펴보면, 일상적인 씻기는 부엌이나 마당에서 좌식 이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이루어졌고, 다듬기는 양에 관계없이 마당에서 좌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 이 보편적이었다. 조리는 부엌에서 부엌 바닥에서 좌식으로 하거나 재래식 부뚜막에서 허리를 구부 린 자세로 조리한다. 뒷처리는 부엌내에 급배수 설비가 없는 경우는 부속사나 마당으로 확장되어

취사공간유형	부엌내의 물리적 요소		설비		시설	구조 및 재료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작업대	바닥재료	바닥차		
재래형		급배수 설비가 없다. 높이 68cm 미만 개수대설비	재래식 아궁이 재래식아궁이 +연탄아궁이	작업대가 없다. 재래식부뚜막	흙 시멘트 몰탈 시멘트 몰탈 +비닐 장판	바닥차가 있다. (25cm이상)	
개량형		높이 68cm미만 개수대 설비 높이 68~88cm 개수대 설비 높이 89cm이상 개수대 설비	재래식 아궁이 +연탄 아궁이 연탄 아궁이	재래식 부뚜막 개량식 작업대 (높이 60~80)	시멘트 몰탈 시멘트 몰탈 +비닐 장판	바닥차가 있다. 바닥차가 없다. (25cm미만)	
입식형		높이 80cm이상 개수대 설비	연탄 아궁이 아궁이 설비가 없다.	입식 작업대 (높이 80cm이상)	시멘트 몰탈 +비닐 장판 비닐 장판	바닥차가 없다. (25cm미만)	

〈그림 2〉 취사공간의 유형화

〈표 8〉 재래형에서의 취사공간 사용방식

전체 : 8사례

행위	공간	부	업	마	당	목	욕	탕	부	속	사	마	루
일상씻기		•••		••••		•				••			
다듬기		•		••						•••		•	
조리	②	••											
배선		••••••••											
뒷처리		••••		•••						••••			

• 1사례
 사례수 - ● 5사례
 ● 10사례
 ● 좌식
 기거양식 - ⊕ 구부린자세
 ○ 입식

좌식으로 행해진다.

② 설비에 따른 기거양식

재래형은 취사설비가 좌식 위주로 되어 있어 이러한 물리적 제약에 의하여 모든 취사행위가 좌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엌내에 취사를 위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사용이 마당이나 부속사로 확대되기가 용이하여 외부에서도 취사가 많이 이루어졌다.

(2) 개량형에서의 취사공간 사용방식

개량형은 부엌내의 급배수 설비와 작업대 시설이 재래식, 개량식, 입식이 혼합되어 있고 취사시의 기거양식도 좌식, 허리를 구부린 자세, 입식이 혼합되어 행해진다. 취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재래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상씻기, 뒷처리는 부엌을 중심으로 마당으로 확장되었고 다듬기는 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체

적인 취사행위에 따른 사용공간과 기거양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9).

① 취사내용에 따른 사용공간과 기거양식

개랑형에서는 일상 씻기는 허리를 구부린 자세나, 좌식과 입식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마당으로 확장되어 좌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듬기는 부엌과 마당에서 비슷한 빈도로 이루어졌으며 좌

식의 기거양식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조리와 배선은 부엌에서 이루어졌고, 대부분 구부린 자세로 이루어지나 입식과 좌식도 나타났다. 뒷처리는 부엌을 중심으로 마당으로 확장되었다. 뒷처리의 기거양식은 좌식과 입식, 구부린 자세가 혼합되어 나타났다.

〈표 9〉 개랑형에서의 취사공간 사용방식

전체 : 19사례

취사행위	공간	부엌	마당	목욕탕	부속사	마루
일상씻기	••••• ⊗○○○○○	●•			•	
다듬기	●••••• ○	●••			•	
조리	••••• ⊗○○○					•
배선	••••• ○○○○					•
뒷처리	●••••• ○○○	●••••	•			

• 1사례
 사례수—● 5사례
 ● 10사례
 ● 좌식
 기거양식—⊗ 구부린자세
 ○ 입식

〈표 10〉 개랑형의 설비유형에 따른 취사공간 사용방식

설비	취사행위	공간	부엌	마루	목욕탕	부속사	마당	사례
I	씻기		•••	••				3
	다듬기		••	••				
	조리		•••					
	배선		•○○					
	뒷처리		•••	••				
II	씻기		•⊗○○○○	●•		•		10
	다듬기		⊗●•	●••		•		
	조리		⊗○○○○•			•	••	
	배선		⊗•••○				••	
	뒷처리		⊗•••	•••	•			
III	씻기		•••○○○	•••				6
	다듬기		•••○	••••				
	조리		○○○○○○○○					
	배선		○○○○○○○					
	뒷처리		•••○○○	•••				

• 1사례
 사례수—● 5사례
 ● 10사례
 ● 좌식
 기거양식—⊗ 구부린자세
 ○ 입식

② 시설 및 설비에 따른 기거양식

재래식, 개량식, 입식의 시설 및 설비가 혼합되어 있는 개량형 부엌을 작업대와 작업대의 높이에 따라 나누어 본 결과 I, II, III 3가지 형으로 나타났고 유형에 따른 취사공간 사용방식은 다음과 같다(표 10).

I 형은 60cm이하의 개수대와 재래식 부뚜막을 작업대로 갖는 경우로 재래형과 비슷한 취사공간 사용방식을 보였다. II 형은 60~79cm높이의 개수대와 작업대가 설치된 경우로 대부분의 씻기나 조리가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이루어졌다. III 형은 높이 80cm 이상의 개수대와 높이 60~79cm의 개량식 작업대가 설치된 경우로 입식, 허리를 구부린 자세의 기거 양식이 나타났다. 그러나 개수대나 작업대 시설이 입식임에도 불구하고 일상 씻기나

뒷처리가 좌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과거로부터의 습관에 의한 것으로 연령이 많은 경우에는 좌식의 기거양식이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개량형에서 구체적인 취사내용에 따른 사용공간은 재래형에서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취사시의 기거양식은 시설 및 설비의 지배를 받으나 습관에 따라 입식의 설비에도 불구하고 좌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3) 입식형에서의 취사공간 사용방식

입식형은 조사지역에서 가장 입식화된 형태로 부엌내에 입식의 급배수 설비와 작업대를 갖는다. 구체적인 취사행위에 따른 공간사용과 기거양식은 다음과 같다(표 11).

〈표 11〉 입식형에서의 취사공간 사용방식

행위	공 간	부 엷	마 당	목 욕 탕	부 속 사	마 루
일 상 씻 기	• • ○ ○ ○		● ● • • • •	● • •	• • • •	
다 듬 기	○ ○ ○ ○		● ● • • • •		• •	• • • •
조 리	• ● ○ ○ ○ ○		•		•	• •
배 선	• • • ○ ○ ○ ○					•
뒷 처 리	• • • ○ ○ ○		• • • •	• • •	• • •	

• 1사례
 사례수 - ● 5사례
 ● 10사례

● 좌 식
 기거양식 - ○ 구부린자세
 ○ 입 식

① 취사내용에 따른 사용공간과 기거양식

일상적인 씻기는 부엌에서 입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다듬기는 마당에서 좌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보편적이었고 양이 적은 경우는 개수대나 작업대에 서서 다듬거나 바닥에 앉아서 다듬기도 하였다. 조리는 부엌내의 싱크대에서 입식으로 하였고 조리내용이나 습관에 의해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뒷처리는 가장 입식화된 행위로 대부분이 부엌내에서 이루어지나 큰조리기구의 뒷처리는 마당수도나 기타 급배수 설비가 된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② 설비에 따른 기거양식

입식형에서는 개수대와 작업대가 모두 높이 80cm이상이다. 설비에 따른 기거양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입식의 설비를 사용하여 취사행위를 하고 있었으나, 몇 사례는 입식의 설비에도 불구하고 좌식으로 취사행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입식의 설비가 갖추어져도 좌식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개량형에서와 같이 사용자의 습관에 의해 좌식이 선호되는 경우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사공간 유형에 따른 공간 사용방식을 취사행위 내용과 설비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사공간 유형이나 설비형태에 관계없이 취사내용에 따라 일상 씻기와 뒷처리의 경우는 부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흙이 묻은 농산물이나 양이 많은 김치거리의 씻기와 큰 조리기구 등의 뒷처리 행위는 마당수도 등으로 확장되었다. 다듬기의 경우는 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조리와 배선은 부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취사공간 유형과 설비유형에 따른 취사내용에 따른 기거양식을 살펴본 결과는 부엌내의 개수대나 작업대의 형태에 따라 취사시의 기거양식이 지배를 받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취사내용에 따라 다듬기는 좌식이 지배적이고 일상 따라 다듬기는 좌식이 지배적이고 일상 씻기와 뒷처리의 경우 부엌내의 시설 및 설비가 많은 양의 씻기나 큰 조리 기구의 뒷처리 행위를 수용해 주지 못하므로 마당수도나 목욕탕 등으로 행위가 확장되어 좌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농촌주택에 있어서 식생활 내용이 아직 많은 양의 음식 준비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고, 밭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은 흙이 묻은 상태로 가져와 조리하는 식품구입 단계이므로 부엌 이외의 취사공간 확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식사공간 사용방식과 취사공간 유형과의 관계

식사공간의 사용방식 유형은 계절에 따라 안방과 마루에서 좌식으로 식사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부터 계절에 관계없이 부엌에서 입식으로 식사하는 4가지로 나뉘어졌다. 이는 식사공간 사용방식이 변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식사 공간 사용방식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부엌공간의 등장임을 알 수 있다.

취사공간의 중심이었던 부엌이 입식화 실내화 되고 식탁이 도입되며 DK공간이 되고, 취사와 식사가 함께 수용되는 식·취공간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취사공간의 유형이 식사공간 사용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식사공간 사용방식과 취사공간 유형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표 12).

(표 12) 취사공간 유형과 식사공간 사용방식과의 관계

취사공간 유형	식사공간 구성	기거 양식	사례수	계
재 래 형	안 방	좌 식	1	8
	안방+마루	좌 식	7	
계 량 형	안 방	좌 식	5	19
	안방+마루	좌 식	12	
	안방+부엌	좌 식	1	
입 식 형	안방+마루	좌 식	1	31
		입 식	7	
	부 엷	좌 식	2	
		입 식	8	

재래형의 취사공간을 갖는 주택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안방에서 식사를 하거나 계절에 따라 안방과 마루에서 식사를 하는 형태가 나타났고, 개량형의 취사공간을 갖는 주택에서는 재래형과 같이 전통적인 식사공간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취사공간이 부분적으로 입식화 되어 여름철에는 취사공간인 부엌에서 식사가 이루어지는 예도 나타났다. 입식형의 취사공간을 갖는 주택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절에 따라 안방과 마루에서 좌식으로 식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부엌에서 식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가 모두 나타났다.

도시화되는 농촌지역에서 취사공간 유형에 관계없이 전통적인 식사방식으로 식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편적이었으나 취사공간이 입식화되면서 부엌에서 식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식침의 분리가 점차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VI. 결 론

도시화, 근대화, 공업화로 농촌사회는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농촌의 주거특성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를 모방하고 있고 농촌의 주택 역시 도시의 주택과 비슷한 양상으로 변경되거나 신축되고 있었다. 그러나 농촌의 주생활은 도시화는 다르기 때문에 농촌거주자들의 생활방식

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형 주택은 농촌 거주자들의 생활과 갈등을 일으키는 측면이 발생한다.

특히 도시의 영향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부엌 공간은 실내화, 입식화, DK화되고 취사행위시의 기거양식도 입식화되고 식침분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농촌의 생활특성에 의하여 입식화된 부엌에서 모든 취사행위를 수용하지 못하고 마당수도나 목욕탕, 부속사 등 급배수 설비가 된 곳으로 취사행위가 확장되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취사행위가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의 생활과 농촌의 생활이 다르므로 농촌지역 주택의 취사공간 계획시 입식화된 부엌공간과 함께 부엌과 마당을 연결시켜 주고 급배수 설비가 된 취사행위 확장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박성준(1986), 농촌건축의 공간구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덕봉리 마을의 사례를 통하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2) 유옥순(1988), 한국 농가주택의 부엌공간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3) 최병숙(1988), 서울근교 농촌주택에 있어서 식사 및 취사공간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4) 한필원(1987), 농촌지역 농가주택의 이용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5) 홍경희(1987), 도시·촌락조사법, 법문사

